

2008 년 가을 학기
전시간 훈련의 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 회년

메시지 1

회년과 그리스도

성경: 눅 4:18-19, 9:20, 22, 24:26

- I. 회년이란 우리가 속박에서 해방되어 우리의 뉘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. 회년을 선포하는 것은 노예 노릇에서의 해방과 우리의 영적 장자권을 누리는 것의 회복을 선포하는 것이다—레 25:8-17.**
- A.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해는 회년으로 예표된 신약 시대로서, 죄의 포로 된 데서 돌아온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시고, 죄의 속박 아래 억눌렸던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해방을 누리는 때이다—눅 4:19, 사 49:8, 고후 6:2.
 - B. 회년의 선포는 칠월 십일, 속죄일에 있었다. 이것은 회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근거한 것임을 가리킨다—레 25:9.
- II. 누가는 회년이라는 관점에서 그의 복음을 썼다—4:18-19.**
- A. 4 장에서 전한 회년의 개념이 누가복음의 다음에 나오는 모든 장들을 지배한다.
 - B. 우리는 누가복음 5 장부터 24 장에 기록된 것을 누가복음 4 장에서 선포된 회년의 일부로 여겨야 한다.
- III. 회년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—9:20, 24:26, 마 16:16, 요 20:31, 요일 2:22, 5:1.**
- A.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으신 분, 즉 하나님의 목적,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시다—마 16:16, 단 9:26.
 - 1. ‘그리스도’는 그분의 직무, 그분의 위임에 따른 주님의 칭호이고, ‘하나님의 아들’은 그분의 위격에 따른 그분의 칭호이다—요 20:31.
 - 2. ‘그리스도’라는 칭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시는 주님의 위임을 가리킨다—눅 9:20.
 - B. 그리스도가 없이는,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름 부으신 분이 없이는 회년이 있을 수 없다—4:18-19, 9:20.
 - 1.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을 떠나서는 참된 회년이 올 수 없다—24:26.
 - 2. 이분은 오실 때 회년을 가지고 오셨다. 사실상 그분의 오심 자체가 회년이다—1:69, 2:11, 30, 19:9.
 - C. 회년은 우리의 누림을 위한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이시다—골 2:9, 1:12-13.
- IV.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—그 속성들을 지닌 신성한 본성과 그 미덕들을 지닌 사람의 본성의 연합—은 회년을 위한 것이다—눅 1:32-33, 35, 4:18-19.**
- A. 주 예수님은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 안에 있는 삶을 사셨다—10:30-37.

- B. 그러한 삶은 회년을 위한 것이었는데, 그것은 그 삶이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해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삼일 하나님을 누리는 데로 이끄는 삶이기 때문이다—19:1-10.
- C. 사람-구주의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은 그분의 역동적인 구원을 위한 그분의 자격과 기본적인 요인으로 조성된다—1:31-33, 35, 2:20, 40, 3:6, 19:9.

V. 주 예수님의 사역은 회년의 사역이었다—4:18-19.

- A. 주 예수님은 은혜의 회년을 선포하심으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다—19 절.
- B. 사람-구주께서는 우리를 속박에서 회년 안으로 구원하신다. 그분은 우리를 회년의 자유와 누림과 만족과 안식 안으로 구원하신다—13:10-17.

VI. 회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포함한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 안으로 들어가셔야 했다—9:20, 22, 23:26-43, 24:6-7, 26.

- A.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박에서 해방하시기 위해 죽으셔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—22:53, 23:44-46, 24:26.
 - 1.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포함한 그분의 구속을 통해 우리를 각종 속박에서 해방하시기 위한 요구를 이루셨다—히 9:12, 롬 3:24, 엡 1:7, 골 1:14.
 - 2. 골로새서 2 장 14 절-15 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일어난 싸움을 묘사한다.
 - a. 하나님, 그리스도, 악한 천사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연관된 활동들이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. 그러므로 그때에 십자가가 우주의 중심이었다—14-15 절.
 - b.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애쓰고 계셨고,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고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일하고 계셨다—14 절.
 - c. 동일한 때에 악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일을 좌절시키려는 공격으로 분주했다. 그러므로 십자가에 전쟁이 있었다.
 - d.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악한 천사들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공개적으로 수치당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기셨다—15 절.
 - 3.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망시키셨다—히 2:14.
 - 4.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반역의 기반이 흔들렸고, 땅에 속한 사탄의 왕국의 요새들이 깨뜨려졌고, 죽음과 음부의 세력이 정복당하고 굴복되었다—마 27:51-52.
- B.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 우리를 신성한 유업—우리의 누림을 위해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 되도록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—을 누리는 데로 이끄셔야 할 필요가 있었다—고전 15:45 하, 고후 3:17.
- C. 그리스도의 죽음은 완전한 구속을 성취하시어 우리를 모든 부정적인 것에서 자유케 하시고, 그분의 부활은 긍정적으로 우리를 삼일 하나님을 누리는 데로 이끌었다—이것이 회년이다—눅 24:26, 골 2:14-15, 1:12-13.